

『3대동거 아파트』 관심된다

가정의 변화, 특히 가족원 구성형태의 변화는 주거의 모습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핵가족화의 심화가 최근 몇년간 주거 공간에 대한 개념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각 가정마다 두자녀나 한자녀만으로 만족하는 요즘서로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함께 어울려 살수 있는 소위 「3대동거형」이라는 복합가족주택 형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할아버지(1대) 아버지(2대) 자녀(3대)의 3대가 함께 모여

老父母 모시기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는 배려를 갖춘

히 달은 집에 대한 바람이다. 대부분 젊은 부부들은 부모세대와 독립해 살기를 원하며 이같은 현상이 가구수를 수없이 증가시켜 왔지만 노약해진 부모세대를 모시는 데 필요한 3대동거형 주택의 필요가 이미 10여년전부터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돼 왔다.

넓은 집을 쓰는 여유 있는 가정이야 별문제가 없지만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 한정된 거주공간밖에 가질수 없는 일반가

정에서는 3대가 모여 살면서 겪게되는 갈등이 현재 노인문제의 상당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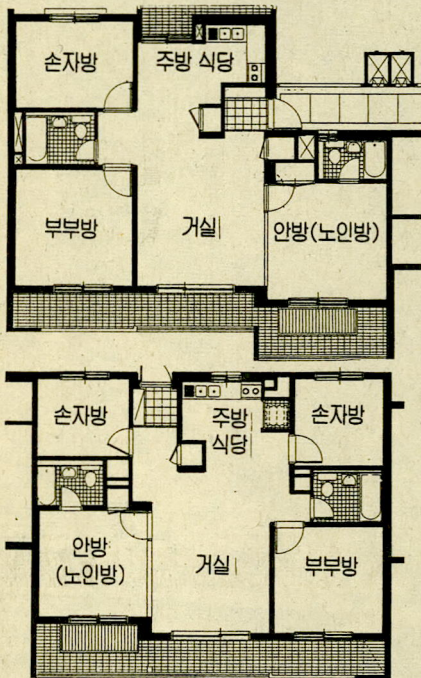
이같은 필요에 따라 주택공사가 지난 88년 상계동에 시범적으로 3대동거형개념을 적용한 전

용면적 25~30평 아파트를 지어 좋은 반응을 얻은 이래 핵가족전용구조를 3대동거가 가능하도록 하는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다.

주공의 3대동거형아파트에는 화장실을 결합 욕실2개를 만들어 이중 욕실1개는 1대부부전용으로 쓸수 있도록 세면대 욕조 변기들의 높이를

「한지붕 두세대」에 파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주공에 의해 추진되어온 이같은 3대동거형 아파트는 현재 18평이하의 서민아파트 건설계획에 밀려 본격적인 건설은 2,3년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주도권 갈등 없애려 안방을 2개로 욕실 문턱 낮추는등 노인편의 우선



주공이 추진중인 3대동거형 아파트 (전용면적 25평).

낮추고 문턱을 없애며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재를 특수한 것으로 하고 안전손잡이를 다능안전을 위한 배려를 했다. 1대전용안방의 문은 전방양식의 미닫이로 또 앞창의 배란다부분에는 휴식을 위한 미루공간을 설치했다.

주방 2개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중인데 1, 2대간 갈등이 생길 경우 따로 조리할 하계면화해의 기회가 줄어

또 집이 좁아 함께 살수 없는 경우 도모 5, 10평거리에 1, 2대가 살면서 서로 자주 드나드는 형태도 들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의 주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합기구 형태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董씨는 주장한다.

〈姜尙憲〉

